

류현진, 사이영상 후보 현재 1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내셔널리그(NL) 사이영상 예측지수에서 1위를 유지했다. 류현진은 27일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이영상 예측지수 순위에서 82.5점을 얻어 내셔널리그 1위를 질주했다.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켄리 켄슨(62.3점)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마무리 투수 커비 예이츠(60점)가 2, 3위에 올랐다. 류현진과는 20점 넘게 차이가 난다. ESPN 사이영상 예측은 야구 통계

학자 빌 제임스와 ESPN 칼럼니스트 톰 네이어가 함께 만든 공식으로 순위를 정한다. 투구 이닝, 자책점, 탈삼진, 승패, 세이브, 완봉승 등을 공식에 대입해 사이영상 포인트를 계산한다. 소속팀이 지구 1위를 달리면 승리 보너스 12점을 추가로 얻는다. 류현진은 28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원정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7승째(1패)를 수확했다.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을 32에서 마감했지만, 6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3자책점

미국 스포츠 ESPN, 예측지수 순위 82.5점
2위 켄슨·3위 예이츠와 20점 넘게 차이나

이하)를 찍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10경기에서 65⅓이닝을 던지며 자책점 12점을 기록, 평균자책점 1.65를 기록했다. 양대리그를 통틀어 정규이닝을 채운 투수 중 1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류현진 뿐이다.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도 질주 중이다.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여서 승리 보너스 12점도 추가했다. 5월 ‘이 달의 투수’를 노리는 류현진의 경쟁자로 꼽히는 마이크 소로카(애들랜트 브레이브스)는 54점으로 8위에 올랐다. 소로카는 올 시즌 8경기에 선발 등판해 5승 1패 평균자책점 1.07을 기록했다. 특히 5월에 나선 5경기에서 34이닝을 던지며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79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류현진은 5월에 나선 5경기에서 소로카보다 많은 38이닝을 소화했고, 패배없이 4승 평균자책점 0.71로 위력을 과시했다. 뉴스시

또 다른 5월의 투수 경쟁자인 브랜던 우드러프(밀워키 브루어스)는 5월 한 달 동안 5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1.36을 기록했다. 류현진, 소로카보다는 떨어지는 수치다. 투구 이닝도 33이닝으로 류현진, 소로카보다 적다. 류현진은 또 다른 사이영상 예측 지수인 톰 탱고 포인트 순위에서도 내셔널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야구 통계 전문가 톰 탱고가 고안한 사이영상 포인트 계산은 ESPN 공식보다는 간단하다. 투구 이닝을 2로 나눈 수치에서 자책점을 빼고 여기에 탈삼진을 10으로 나눈 수치와 승수를 더해 점수를 계산한다. 톰 탱고 사이영상 포인트 공식에 기록을 대입하면 류현진의 점수는 33.9점이다. 류현진은 28일 피츠버그 전 등판 이전에 31.6점으로 1위였는데 점수가 2.3점 올랐다. 이 순위에서는 소로카가 28.9점으로 류현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뉴스시



전남 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 K리그 주니어 상위스플릿(A조) 진출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가 후기리그 A조 진출에 성공했다. 전남은 최근 울산 U-18(울산현대고)을 상대로 1-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7점, 리그 5위로 전기 리그를 마무리했으며, 후기리그에 선 상위 스플릿인 A조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국프로야구연맹은 올 시즌부터 K리그 주니어 리그를 프로와 동일하게 전기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후기리그를 상위스플릿과 하위스플릿으로 나눠 운영한다. 팀은 자동으로 후기리그 상위스플릿인 A조에 속하며, 각 조 6위 중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스플릿 A조에 편성된다. 이재승 감독이 이끄는 전남 U-18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송죽구장에서 열린 2019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 10라운드에서 강팀 울산 U-18(울산현대고)을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40분 울산 수비진 뒤편 아웃리인으로 빠지는 공을 박태용이 살렸고 신호연이 올려준 크로스를 김승현이 득점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득점 직후 집중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울산 박준혁이 리바운드볼을 골로 연결해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였다. 후반전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지만, 추가 득점 없이 1-1로 경기가 종료되었다. 멋진 선방을 보여주며 골문을 지킨 조성민 선수는 “제가 먼저 중심이 무너져 반응을 못했고 2차 동작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실점 상황에 대해 아쉬워했고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선제골에 큰 도움이 된 박태용 선수는 “전후반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고 후반전에서 많은 공격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해 아쉬운 경기였다”면서 “백운기 이후 잇따른 선수들의 부상에 모두 끝까지 싸워준 덕분에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재승 감독은 “3월 9일에 시작하여 10번째 경기로 전기 리그를 마무리했다. 전기 리그의 1차적 목표는 후기리그 상위스플릿으로 진출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후기리그에서 중부지방의 좋은 팀들과 경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기에 임해주었던 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총평을 남겼다. 경기 전 선수들에게 특별한 강조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울산 현대고는 빌드업, 컨트롤, 패스 모든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 운영을 잘하는 상대이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빠른 역습이 가능하다. 파이브백으로 수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공격 찬스가 생겼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 있게 플레이하라고 주문했다”고 답했다. 또한, “6월에 바로 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이 충분히 회복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 오를 밝혔다. 이날 치러진 U-17 경기에서는 골키퍼 정승일 선수가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약재를 겪는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0:2로 패하고 말았다. 광양=김승호 기자

광주 중국인 유학생 59% “중국인들, 수영대회 보러올 것”

광주지역 중국인 유학생 상당수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미스터즈수영대회에 중국인들이 직접 관람하러 올 것이고 광주를 중국에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광주시 차이나센터가 호남대 관광경영학과에 의뢰해 14~23일 광주권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406명을 대상으로 광주 세계수영대회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9%가 “광주가 수영대회 개최도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77.8%는 “대회를 통해 광주를 중국에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54.4%는 “중국의 친구, 친지, 동료에게 수영대회 관람을 위해 광주를 방문할 것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표본오차는 95% 건의사항으로는 49.5%가 “중국 어 안내서비스 확충”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취환을 반영한 숙박시설 개선”(17.7%), ‘깨끗한 도시환경’(14.8%), 교통편의(9.9%), 음식(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1%다. 뉴스시

순천대,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선전’

여대학부 단체전에서도 3위 · 강수빈 개인 70m 공동 1위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가 최근 6일간 전라북도 오수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6회 올림픽 기념 최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순천대 사회체육학과 강수빈(사회체육학과 1년) 선수가 최근 열린 여자 대학부 70m 개인전에서 336점을 기록하며 김민서(광주여대) 선수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수빈 선수는 지난 달 개

최된 제53회 전국 남·여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 70m 개인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거는 패거리를 거뒀다. 순천대는 여자 대학부 단체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신아영(4년), 이보영(3년), 임하은(2년), 강수빈(1년)으로 구성된 양궁팀은 단체전 16강에서 목포대를 6-0으로 완파하고, 이어진 8강에서 한국체대를 5-4로 누르며 4강에 진출했으나 광주여대에 1-5로 아쉽게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한편, 순천대는 올해 출전한 전국 남·여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와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입상하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메달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